미혼모·열혈맘·대리모…

안방극장 속 엄마들 '각양각색'

채시라 출연작 MBC '이별이 떠났다' 엄마가 되는 과정 보여줘
SBS '시크릿 마더' '나도 엄마야' 등 학부모 심리묘사 절묘
모성에 대한 다각도 해석 … 현실적 엄마 모습에 공감도

그동안 엄마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드라마는 수없이 많았지만 최근 작품들 속 엄마의 모습은 과거의 것들과는 상당히 다르다.

최근 엄마의 모습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한 드라마들이 연이어 선보이고 있다. 한 명의 엄마가 아니라 여러 명의 엄마를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것도 특징이다.

배우 채시라가 3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한 작품으로 관심을 끈 MBC TV 토요극 '이별이 떠났다'에는 3명의 엄마가 등장한다.

채시라가 연기하는 영희는 남편 상진(이성재 분)의 외도에 절대 이혼해주지 않고 성(城) 같은 집을 혼자 지키는 여자다. 우편물도 장바구니도 문 앞에서 배달받고, 커튼을 절대 열지 않을 정도로 자신을 집에 가뒀다. 가끔 화장실에서 담배를 무는 모습에서 극도로 쇠약한 신경과 불안한 심리를 엿볼 수 있다.

상진과 바람나 아이까지 낳은 세영(정혜영)은 엄마는 맞지만 아내는 아니다. 상진과 이혼해주지 않고 죽지 않을 정도의 생활비만 보내는 영희 때문에 그는 평생 '첩'으로 불리며 산다.

남자친구인 영희의 아들과 하룻밤 사고로 임신해버린 정효(조보아)는 대학생이다. 그러나 아기를 지우러 갔다가 심장 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리는 그의 모습에서 나이는 어리지만 또 다른 엄마의 얼굴을 볼 수 있다.

드라마 제작진은 29일 "우리 작품은 단순히 '엄마 이야기'보다 '엄마가 돼가는 과정'에 집중한다"며 "세 명의 엄마 캐릭터를 통해, 엄마를 통해 엄마가 되는, 나아가 여러 모습의 엄마를 대변하는 작품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단순한 엄마가 아니라 대리모, 입시 보모 등 사회의 그늘에 있지만, 드라마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새로운 유형의 엄마들을 내세운 작품들도 있다. SBS TV 토요극 '시크릿 마더'와 같은 채널 아침극 '나도 엄마야'가 그렇다.

'시크릿 마더'는 아들 교육에 올인한 '강남 열혈맘' 윤진(송윤아)의 집에 의문의 입시 보모 은영(김소연)이 들어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윤진이 딸을 잃은 슬픔에 몸부림치는 모습 등에서 모성이나 가족적 요소도 느낄 수 있지만, 그보다는 사건·사고에 집중된 스릴러 성격이 강하다. 각자의 비밀을 안고 눈치 게임을 하는 학부모들의 심리묘사를 보는 재미도 있다.

'나도 엄마야'에도 돈이 필요한 대리모 지영(이인혜)과 아기가 필요한 경신(우희진), 두 명의 엄마가 등장한다. 제목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 대리모라는 이유로 모성을 박탈당한 여자지만, 결국은 '엄마'로서 가족의 소중함과 따뜻함을 알게 된다는 게 굵직한 줄거리다.

지난 3월 종영, 제1회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 경쟁부문에까지 진출하며 국내외에서 호평받은 tvN '마더' 역시 '전형적인 엄마들'은 없다.

영신(이혜영)과 수진(이보영), 수진과 혜나(허율)는 혈연으로 엮이지 않았지만 평범한 모녀들보다 끈끈한 유대를 자랑한다. 수진의 생모인 홍희(남기애) 역시 물론 절절한 모성을 보여줬지만, 영신의 모성은 그와 다른 의미로 역시 뜨겁다. 반면 혜나를 직접 낳은 자영(고성희)의 마음은 차갑기만 하다.

'마더' 관계자는 "'마더'는 낳았다고 모성애가 자동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아이를 기르는 과정에서 생긴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모든 엄마가 동일한 모양의 모성을 가졌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해 한 작품 안에서도 모성을 다각도로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리와 안아줘' 관계자는 최근 드라마들이 다양한 엄마의 모습을 조명하는 데 대해 "누구나 '엄마'를 기억하고 있고, 그리워하고 있으며 나아가 많은 여성이 엄마가 되어가는 순간을 마주하게 되기 때문에 모두가 '엄마 이야기'라면 모양이 어떻든 공감하고 감정 이입하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MBC '이별이 떠났다'

SBS '시크릿 마더'

tvN '마더'

방탄소년단 키워 낸 프로듀서 방시혁 주목

지오디·백지영의 히트곡 써 BTS로 대통령 표창받아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배출한 방탄소년단이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면서 빅히트 대표 프로듀서 방시혁(46·사진)에게 관심이 쏠린다.

1972년생인 그는 경기고와 서울대 미학과를 졸업했다. 영국 팝밴드 '듀란듀란'을 동경하며 자란 그는 1994년 제6회 유재하 음악경연대회에서 동상을 받으며 가요계에 발을 디뎠다.

이후 박진영에게 발탁돼 1997년 JYP 엔터테인먼트에 들어가 숱한 히트곡을 썼다.

비의 데뷔곡 '나쁜남자'를 비롯해 god '하늘색 풍선', 백지영 '총 맞은 것처럼'과 '내 귀에 캔디', 에이트(8eight) '심장이 없어', 박지윤 '난 사랑에 빠졌죠', 2AM '죽어도 못 보내' 등이 그의 손끝에서 탄생했다.

이 가운데 '총 맞은 것처럼'은 사연이 많은 곡이다. 방시혁은 한창 음악적 슬럼프에 시달릴 때 박진영의 따끔한 조언을 듣고 이 노래를 썼다고 한다. 댄스 가수였던 백지영은 2006년 '사랑 안해', 2007년 '사랑 하나면 돼'에 이어 2008년 '총 맞은 것처럼'까지 히트하며 발라드 가수로 입지를 굳혔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지난 3월 공개한 탈북민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 노래는 북한에서도 인기 있는 한국 가요다.

방시혁은 2005년 JYP에서 독립해 빅히트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으며, 2010년 MBC TV '스타 오디션 위대한 탄생'에 멘토로 출연해 '속정 깊은 독설가'로 이름을 날렸다.

2013년 방탄소년단을 데뷔시켰고, 5년 만에 이들을 세계 최고의 보이그룹으로 성장시켰다. 정부는 그 공로를 높이사 '2017 대한민국 콘텐츠대상' 시상식에서 해외진출유공 문화교류공헌 부문 최고상인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

넷마블 방준혁 의장과는 친척 간인데, 넷마블은 지난 4월 빅히트 지분 25.71%를 확보해 2대 주주로 올라서며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상반기에는 방탄소년단의 영상과 화보를 활용한 실사형 시네마틱 게임 'BTS 월드'도 출시된다.

방시혁은 자신을 '방탄소년단의 아버지'로 부르지 말아 달라고 농반진반 당부하곤 한다.

그는 지난해 12월 기자간담회에서 "아티스트라는 게 누군가가 창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제가 아버지라고 불리는 순간 마치 방탄소년단이 객체가 되고 제가 만들어냈다는 것이 돼 제 철학과 맞지 않아 불편하다. 그리고 사실 제가 미혼"이라고 웃으며 말했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3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 S 뉴스 광 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전생에 웬수들(재)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국민의 일꾼	25 닥터 365 30 나도 엄마야
9	30 KBS 뉴스	00 파도야 파도야 40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이리와 안아줘 (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천상의 컬렉션 (재)	00 슈츠 (재)		00 열린TV 시청자 세상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이리와 안아줘 (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테마스페셜
1	00 KBS네트워크특선 휴먼터치 인 50 제17회 밀양아리랑 가요제	00 속보이는TV 인사이드(재)	30 TV속의 TV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	30 프리파라 3	00 뉴스브리핑
3	00 세계는 지금 스페셜 10 한국인의 밥상 (재)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00 MBC스포츠 UEFA 챔피언스리그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		00 건강한 토크쇼 내 몸을 부탁해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가정의 달 특선만화 코딩배틀 네오봇마스터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00 뉴스콘서트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0 닥터 365 05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55 지식 통조림
7	00 KBS 뉴스 7 30 KBS 뉴스 7(광주) 35 공감다큐, 사람	50 인형의 집	15 전생에 웬수들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05 생방송 TV블로그 꼼지락
8	00 집중 인터뷰 이사람 25 내일도 맑음	30 글로벌24 55 살림하는 남자들	55 하하랜드 2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발굴단
9	00 KBS 뉴스9			
10	00 지방선거 서울시장후보 초청토론	00 슈츠	00 이리와 안아줘	00 훈민정음
11		10 추적 60분	10 라디오스타 1~2부	10 로맨스 패키지 1~2부
12	00 KBS 뉴스 10 문화의 향기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세상의 모든 다큐	40 스포츠 다이어리 55 함께사는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용감한 소방차 레이
07:30 띠띠뽀 띠띠뽀(재)
07:45 뽀롱뽀롱 뽀로로
08:00 딩동댕 유치원 1 2
08:3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08:45 랄랄라 뿌우
09:00 뚝딱맨
09:15 엄마 까투리
09:30 몰랑
09:4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EBS 초대석
13:00 지식채널e
13: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3:40 질문 있는 특강쇼 -빅뱅(재)
14:30 너티너츠
15:00 호기심 소녀 도트
15:15 파프리카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15:4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16:15 주사위 요정 큐비쥬
16:30 랄랄라 뿌우(재)
16:45 딩동댕 유치원1 2(재)
17:15 엄마 까투리(재)
17:30 두다다쿵
17:45 뽀롱뽀롱 뽀로로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1~4
19:00 ABU 어린이 드라마 특선
〈모두의 모자 점 나의 자랑〉
19:30 EBS 뉴스
19:50 아빠타
20:40 세계테마기행
〈어른들의 동화 베트남 3부〉
21:30 한국기행
〈꽃보다 할매 3부 당신 참 예쁘다〉
21:50 EBS 다큐프라임
〈불의 검 3부 전사의 고백〉
22:45 극한직업
〈한국인의 소울 푸드 족발과 홍어〉
23:55 질문 있는 특강쇼 빅뱅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30일(음 4월 16일 壬戌)

子 36년생 알면서도 대처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자. 48년생 구도가 완전히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60년생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생산적이다. 72년생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84년생 계획은 좋지만 실행함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3, 94

丑 37년생 간단히 끝나겠다. 49년생 소신껏 임했을 때 탄력이 붙게 되리라. 61년생 혼신의 힘으로 매진해야 겨우 쟁취할 수 있겠다. 73년생 넓은 시야로 바라본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85년생 목전의 진실을 호도하려는 이를 만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67, 33

寅 38년생 내용성이 없다면 그저 공허할 뿐이니라. 50년생 흥정을 잘 붙인다면 두둑한 사례가 따른다. 62년생 차분한 마음과 포용력이 절실히 요청 된다. 74년생 이루어지고 있다. 86년생 곧 강풍이 불어 닥칠 것이니 우선 은신처로 피하고 보자. 행운의 숫자 : 31, 55

卯 39년생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상책이다. 51년생 앞만 보고 진행하는 것이 최상책이다. 63년생 설득력을 갖추자. 75년생 원하는 바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리라. 87년생 향방을 좌우할 만하니 현명한 취사선택이 절실한 때이다. 행운의 숫자 : 63, 86

辰 40년생 성과를 가져올만한 원인 행위를 하게 될 것이다. 52년생 완전히 무시해도 된다. 64년생 상대적일 수 있다. 76년생 굉장히 작게 느껴지겠지만 그 안에서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다. 88년생 방해꾼이 끼어들 수도 있는 정황이다. 행운의 숫자 : 83, 81

巳 41년생 재수가 있는 날이니 길방을 잘 선택하여 보자.53년생 살펴보아라. 65년생 완전하지 않다면 오히려 위험한 지경에 이른다. 77년생 분명한 의사 표시가 있어야한다. 89년생 기존의 상식과 전혀 다른 개념으로 인식하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06, 58

午 42년생 값어치를 따져서 판단할 일이로다. 54년생 균형을 잃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자. 66년생 첨예한 관심사가 눈앞에 펼쳐질 것이니라. 78년생 효율성의 관점에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90년생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는 것이 능률적이다. 행운의 숫자 : 61, 83

未 43년생 갈등하게 되리라. 55년생 확실히 파악한다면 운용은 의외로 쉽다. 67년생 불편하다면 개선해야 한다. 79년생 받아들인다면 절대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91년생 꽤나 속상할 일이 생기겠으니 마음을 비우고 속편하게 생각하라. 행운의 숫자 : 66, 72

申 44년생 일관성이 요구된다. 56년생 인화가 중요한 시점이다. 68년생 형세에 지배 받지 말고 주체적으로 운용하도록 하라. 80년생 괜히 나섰다가는 이상한 입장이 될 수도 있다. 92년생 원칙과 기본을 중시 한다면 안전함을 도모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39, 36

酉 45년생 상호적이라야만 유익하다. 57년생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니라. 69년생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각축전을 벌이겠다. 81년생 모든 것을 차치하고 핵심으로 들어가야 할 판세이다. 93년생 현태에 적응하는 것이 선결 문제이다. 행운의 숫자 : 51, 59

戌 34년생 종합적으로 수렴하자. 46년생 장소를 함께 하고는 있지만 마음은 따로따로이다. 58년생 얻는 바가 상당히 많겠다. 70년생 성부의 향방을 좌우하는 분기점에 서리라. 82년생 목적하는 바가 성취 되면서 무난하겠다. 행운의 숫자 : 18, 40

亥 35년생 교체 해 주어야만 새로운 국면을 열어 갈 수 있다. 47년생 방도와 혜안을 찾아낼 수 있는 여건이 따른다. 59년생 침착하게 행한다면 오히려 더 빠르리라. 71년생 처음에는 힘들더라도 차차 쉬워질 것이다. 83년생 부담스러울 것이다. 행운의 숫자 : 92, 17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